

# 한국-독일 친선우표전시회를 다녀와서 *Deutsch-Koreanische Briefmarken-Ausstellung*



1 한국-독일 친선우표전시회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커팅식 2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의장, 총영사와 함께 3 Frankfurt am Main은 라인(Rhein)강 지류인 Main 강변에 있는 대도시로 오데(Oder) 강변에 위치한 구 동독(DDR)에 있는 또 하나의 프랑크푸르트로 구분된다.

‘독일 통일 26주년’과 ‘우표의 날’을 기념으로 한독우취 문화교류회와 독일 MOENUS우취회와 공동으로, 독일에서는 최초로 10월 1일부터 독일 통일의 날인 10월 3일까지 FRANKFURT Ronneburg Saalbau(한국의 구 민회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에서 열렸다.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우표전시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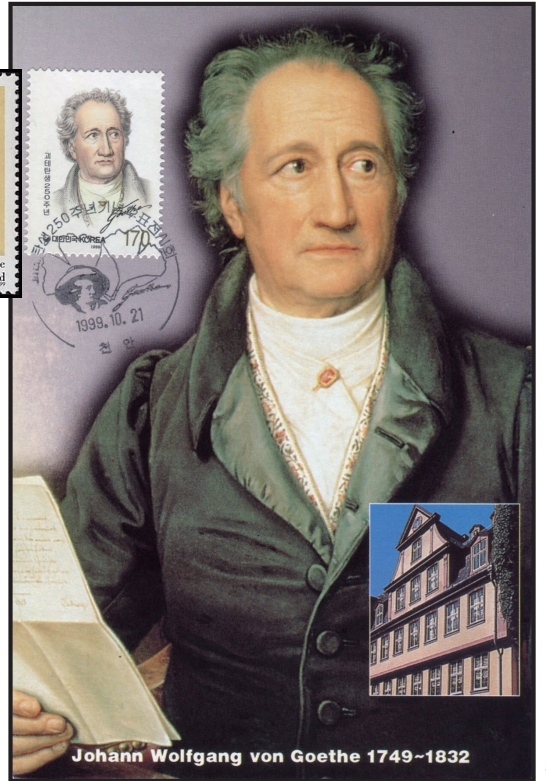
독일 현지시각 10월 1일 오전 11시, 한국식으로 진행된 테이프커팅식 후 보도 폰 굴츠레벤(Bodo von Kutzleben)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보았다. 이번 전시회의 의

의를 설명하고 특히 독일처럼 한국도 어서 통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 33작품이 전시되었는데 한국 측은 ‘통일기원’, ‘유네스코문화유산(직지, 아리랑)’, ‘우리의 섬 독도’, ‘평화의 섬 제주도’ 등 한국의 민속과 예술,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들이 교민들과 독일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독일 측의 22작품은 테마별로 엄선된 작품들이 우취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백범흠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의 축사는 그동안 전시회 준비로 고생한 양국 관계



4



5

4 프랑크푸르티시 1200주년 기념우표(독일, 1994) 5 프랑크푸르트와 독일의 시성 괴테(Goethe) 프랑크푸르트대학교는 약 4만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괴테의 출생지인 이곳을 기념하여 괴테대학교라고도 불린다. 괴테공원에 서있는 거대한 괴테의 동상이 그의 위대한 작품을 이야기한다. 1949년에 괴테탄생 200주년을 맞아 3종의 우표가 발행되었으며 괴테탄생 250주년인 1999년도 한국·독일 양국에서 공동우표가 발행되기도 하였다.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라제안 한국 우취연합 회장을 대신하여 김삼원 사무국장이 축사를 했다. Robert Lange 프랑크푸르트 시의회 의장은 ‘우리는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한반도에도 하루 속히 상호 화해와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축사를 했다. Dieter Germann 독일우취연합 최고위원은 전시회 개막을 축하하며 우리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Moersel 해센주우취회장도 같은 의미의 축사를 하였다.

통일독일의 수도 베를린(Berlin), 항구도시 함부르크(Hamburg), 남부 독일에 위치한 문화도시 뮌헨(Muenchen), 대성당으로 유명한 쾰른(Koeln)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 프랑크푸르트는 항공교통의 요충지이며 금융의 중심지다. 유럽연합(EU)의 중앙은행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인구 70만 중 약 만 오천 명의 교포가 인근에 모여 산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2013년 수교 130주년을 맞아 경복궁에 있는 향원정과 음악가 바그너(Wagner)의 고향 바이로이트(Bayreuth) 태양궁전을 소재로 디자인한 공동우표를 발행하여 당시의 3부 요인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우표전달식을 거행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왜 독일을 우취강국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조직위원회에서 준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면서 작품을 진지하게 관람하고 평가한다. 개인적으로 <괴테의 생애와 작품(Goethe Leben Werke und Wirkung)>을 출판하여 괴테의 고향에서 명예 금상을 수상한 것은 큰 기쁨이며 보람이다. 이번 전시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우정 당국과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의 도움 덕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독일 수교 130주년 기념우표를 첨부한 FDC

공항 도착부터 출발일까지 친절하게 호스트를 해준 Baumgaertel 부부, 전시회 내내 한국의 음식을 제공해준 교민들의 정성이 있기에 전시회가 더욱 빛날 수 있었다. 총영사 이하 영사관 직원들의 관심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1963년, 독일 펜팔 친구의 외무성 독일정부 장학생 추천으로 국비장학생으로서 독일에서 공부하게 된 기억을 떠올리며 그동안 독일에 지냈던 약간의 채무감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소 털 수 있어서 개운하다. 끝으로 한국과 독일 양국의 우정 당국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한국·독일 친선 우표 전시회

## DEUTSCH-KOREANISCHE BRIEFMARKEN-AUSSTELLUNG KOREAN-GERMAN STAMP EXHIBITION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2016 독일통일의 날 경축**

**Tag der Deutschen Einheit**

**기간:** 2016년 10월 1일 ~ 3일 3일간

**장소:** 독일 프랑크푸르트 Ronneburg 전시장

**주최:** 한·독 우취문화교류회, MOENUS 우취회



**후원:**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사)한국우취연합, 독일교민회, 한독협회 KDG, 독일동문네트워크 ADEKO, 한국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GOETHE-GESELLSCHAFT, DEUTSCHE POST, BDPH, 문경시





Frankfurt ist die Vaterstadt von Goethe und das neue Tor zur Welt. Nach der EINHEIT fließt die Elbe friedlich, grenzenlos, ins Meer, Das Brandenburger Tor, Symbol der Teilung, Symbol der EINHEIT -Schoenes Deutschland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in Frieden und Freiheit wuenschend*  
Prof. SHIN Chashik (Berno) aus Republik Korea

아름다운 독일프랑크푸르트는 괴테의 고향인 동시에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다. 브란덴부르크 문은 분단의 상징에서 독일 통일의 상징으로 변모되었다.  
-아름다운 독일 중에서



글 신차식 /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bernoshin@hanmail.net